

무량수전 배흘림  
최순우 지음

**불국사 등 건축 문화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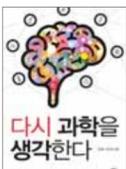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고(故) 최순우 선생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는 많은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문화재와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풍부한 지식과 유려한 글쓰기로 풀어낸 책은 1994년 초판 발행 후 50만부 넘게 팔렸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가 콤팩트한 판형과 양장본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 입었다. '학교재 클래식' 시리즈 첫번째 권이다.

한국의 미와 얼, 조선의 회화, 전통건축과 공예, 불상과 탑, 토기와 도자기 등 5개 섹션으로 나뉜 책은 정선과 신윤복, 김홍도의 그림과 불국사, 경복궁, 부석사 무량수전 등 다양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격을 고려했겠지만 도판이 다시 흑백으로 바뀐 점은 아쉽다.

〈학교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시 과학을 생각한다  
김재호·편찬 지음

**과학의 본질·합리성 강조**

"과학은 이제 무기이자 식량이고 치료제이자 미래이다."

이 말은 "과학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을 위해 과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현대의 과학이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넘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문화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유다.

교수신문 기자인 김재호 씨와 생물다양성과 환경윤리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편찬인 씨가 펴낸 '다시 과학을 생각한다'는 과학의 본질, 합리성과 시민의 참여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들은 이제 '과학 시민권'이 필요한 시대라고 입을 모은다. 과학기술 사회에는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새로운 의무와 덕성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과학기술에 대한 개입과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코리브르·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21C '상처난 지구' 감싸고 통합할 '한국의 보자기'

**이어령의 보자기 인문학**

이어령 지음



"보자기는 커다란 물건과 작은 물건, 둥근 물건과 네모난 물건 모두를 유연하게 감싼다. 일정하게 정해진 모양이 아니면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가방의 딱딱함과 비교도 할 수 없다. 보자기는 융통성이 없는 가방과 달리, 쌀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으며 묶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평면으로 돌아간다."(『이어령의 보자기 인문학』중에서)

당신 앞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 옆에는 가방과 보자기가 놓여 있다. 가방에 넣을 것인가? 보자기로 할 것인가?

일상에서 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가방에 넣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능성과 편리성 때문이다.

사실 우리 윗세대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절부터 책보를 싸가지고 다녔다. 보

기는 이들의 유년에 드리워진 추억이자 공감의 매개체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책보는 책가방으로 바뀌었다. 요즘에는 명절 때 선물 꾸러미를 싸는 정도밖에는 보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자기에 깃든 인문학적 숨결을 주목하는 이가 있다. 그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사물과 하찮은 일상에서도 특유의 사유를 한다. 주인공은 한국의 대표 석학으로 꼽히는 이어령 교수. 그가 이번에는 전통 문화 속의 보자기를 화두로 삼았다. 최근에 발간된 '이어령의 보자기 인문학'은 한국 문화의 원형을 보자기에서 찾는 인문서다.

저자는 "네모난 보자기의 형태부터가 문화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며 "원초적인 동양 사상이 일상생활에 배어난 것이 변화무쌍한 방형(方形)의 마법 보자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는 보자기 모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정보시대의 풍경도 보자기 속에 있다고 덧붙인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인쇄하는 A4용지까지 네모꼴이라는 것이다.

보자기는 하나지만 신축적이고 전방위적인 용도 때문에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 "둥근 것도 싸고 모난 것도 싸고, 긴 것과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싣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는 보자기와 문화에 대한 사유를 전개하면서 '싸다'와 '널다'라는 동사를



보자기는 융통성이 없는 가방과 달리, 쌀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으며 묶을 수도 있다. 이어령 교수는 21세기 '상처난 지구'를 싸고 통합하는 창조적 대안으로 '한국의 보자기'를 제시한다. <광주일보 자료>

어로 든다. 단순한 어휘지만 대립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채롭다. '널다'는 것은 공동(空洞)을 채

우는 욕망이다. 골조를 지닌 공간, 즉 입체를 꾸미는 마음이다. '가방 문화'가 상자를 원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이에 반해 '싸다'는 부드러움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싸기' 위해서는 비단이나 모태처럼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싸다'라는 의미의 한자 '포(包)'는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이 감싸져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 하나, 저자는 보자기에 투영된 문화적 사유를 '버려 둔' 것에서 찾는다. 한국인은 형태도 색도 다른 조각 천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반질고리에 '버려 둔' 민족이었다. 어느 날 색색의 조각 천들은 하나로 꿰매어진다. 창조의 시작이다. 색깔과 모양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한 장의 조각보가 된다.

21세기 산업주의는 트렁크의 시대이다. 또한 정보가 넘쳐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요구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생명주의 시대에는 아이를 요람과 같은 상자보다 포대기로 업어주는 보자기형 문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보자기'는 상처난 '지구'를 싸고 통합하는 창조적 대안이다.

"서양의 근대 문명 수입과 함께 '가방'에 밀려나 버린 보자기는 아시아적 정체라 불리던 '비기능'과 '비합리'의 슬픈 백기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서양의 기능적 합리주의가 절벽에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슬픈 백기가 근대를 극복하는 푸른 화살이기에 도하다."

〈마로니에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웅크린 것은 결국 다 일어선다"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김난도 지음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많은 독자들 함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소통했던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번에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를 펴냈다.

3년 만에 펴낸 신작 에세이에는 웅크리고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다시 일어선다는 그 대에게'라는 부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저

자는 "웅크린 것은 결국 다 일어선다"며 용기를 주문한다. 지난 3년은 자신도 내면으로 움츠러든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희망의 한 문장'을 기다리는 이들의 격려에 힘입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가 다시 글을 쓸 수 있도록 용기를 낸 건 모야모야병을 가진 H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다. 육신의 병을 안고서도 정신의 강대를 꿰뚫어 세우고 불굴의 인내로 살아가는 H씨에게서 삶의 의미와 용기를 봤다는 것이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

고 우리를 이끌어주었기 때문이다. 간절 한 꿈은 우리를 어디로든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웅크린 채 표류하고 있을지라도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저자는 청년들을 향해서만 말을 건네지는 않는다.

기성세대에게는 나이의 자의 책임과 미덕을 상기시킨다. '젊은이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말로 일침을 가한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눈으로 청년문제를 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내놓은 청년정책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한다.

〈오우아·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광활한 대륙서 느끼는 우리역사 실상



도올의 중국일기 1~3  
김용욱 지음

"나에게 중국은 인간의 상상력의 총화라 말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광활한 무형의 장(場)이다. 이 장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의 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중국은 바라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 무한히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도올의 중국일기 1』서문)

도올 김용욱이 지난 1년동안 중국 연

변대학의 객좌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느낀 중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일기형태로 기술한 책 '도올의 중국일기'를 펴냈다. 전 6권 가운데 1~3권이 먼저 나왔다. 1권은 2014년 9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변에서의 일기를, 2~3권에서는 만주의 고구려 도읍지인 환인군 집안지역을 답사하며 고구려 역사여행의 여정을 담아냈다.

저자는 대학 주변에 펼쳐진 광대한 유적군을 조사하면서 우리의 고대사를 현대사로 파악하는 혁명적인 시각에 도달하고, 이러한 시각이 현대 중국의 핵을 새롭게 파악하는 데로 발전되어 나갔다고 전한다.

〈동나무·각 권 1만9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상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